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중남임업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비	30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중국 호남성 창사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02.27. ~ 2017.07.07	기타비용	교재비용 500위안

▣ 파견자 정보

성명	OOO	학과	OOO
성별	남	학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7. 07. 17.

파견자 : (서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수업 (중급반 수업 수강)

- 월~금 : 오전 08:00 ~ 오전 11:35 중 4교시

* 수업시간과 담당 선생님은 매 학기 마다 변동이 있음

⊙ 수업과목

1. 汉语口语 (曾 玉) : 중국어 발음 및 문법들을 배움

과제 - 단어암기, 교제 문제풀기, 배운 것 복습

2. 汉语综合 (谢 丽) : 중국어 발음, 문법, 말하기 등 종합적인 것을 배움

과제 - 단어암기, 워크시트(문제집) 풀기, 배운 것 복습

3. 汉语听力 (胡永晖) : 중국어 듣기능력과 발음을 교정함

과제 - 단어암기, 배운 것 복습

4. 汉语综合(高级) (曾 玉) : 중국어에 관련된 종합적인 것 + 중국어 신조어에 대해서도 약간 배움

과제 - 배운 것 복습

5. 汉语阅读 (钱少青) : 중국어 읽기능력과 발음을 교정함

과제 - 단어암기, 배운 것 복습

6. 初级汉字 (谢 丽) : 중국어 간체자에 대해서 학습.

과제 - 배운 것 복습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위치 : 中国 · 湖南 · 长沙 (중국 호남성 창사시)

기후 :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주 3~4일) 대체로 흐린 날이 계속된다.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쬐며, 각종 벌레들이 날아다닌다. 그리고 봄·여름 상관없이 흐린 날이면 습한 날씨를 유지한다. 계절이 불일 때, 날이 흐린 날이면 꽤 춥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창사 사람들은 여름이 겨울보다 매우 길다고 생각해서 건물 내부는 시원하게끔 건설한다. 이 덕분에 흐린 날에 옷을 얇게 입고 갔다간 추위에 떨어야한다.

교통 : 학교 서문 바로 앞에는 (학교 입구는 동문, 서문) 버스정류장이 있고, 서문에서 8분정도 걸어 가면 지하철역이 있다. 그 덕에 어디로 갈 때에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동문 쪽에서도 3분정도 걸어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다.

주변 편의시설 : 학교 내에 큰 운동장이 여러 존재한다. 농구, 배드민턴, 축구 등 여러 운동을 접하기 쉽다. 그 외에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기 쉬운 pc방, 술집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300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위법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		
주요사항	오후1시~오후4시가 되면 중국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에는 복도에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에서 외국인이 머무는 장소는 3층이다.

한 방에 침대가 2개 있고 책상 또한

2개 존재한다. tv가 있긴 한데 사용하지

않았다.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다.

화장실은 양변기와 샤워기가 있다. 그리고

세면대는 따로 존재한다.

혼자 살기엔 넓고 좋은 방이다.

같은 층, 다른 장소에 공용주방이 있긴 하지만

주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한 위생상태 이다.

세탁기 또한 그 곳에 있다. 2대가 있긴 하지만

1대는 탈수기능이 망기져 1대만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학기 중반쯤에 기숙사 관리인이

다른 이와 방을 합쳐달라고 해서 이후에는

2인 1실로 살았다.

우측의 사진은 룸메이트와 같이 살 때

찍은 사진이다. 방 구조는 이전과 동일하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소감

- 이곳에 와서 여러 중국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외국어 실력을 쌓기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직접 느껴 볼 수 있었다. 이번 기회가 '사람은 한번쯤은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것을 경험 해봐야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2. 수업 외 활동 내용

- 중국에서 중간고사 기간에 외국인들은 실습(여행)으로 '장가계'를 갔었다. 들었던 대로 정말 풍경이 좋았고, 야생원숭이를 바로 앞에서 본다는 흔히 경험하기 힘든 경험 또한 했다. 그 밖에도 유리로 만들어진 대교를 걸어보았다. 걸을 때 밑의 풍경이 다 보여서 신기한 경험이었다.
- 학교에서 약 40분정도 걸리는 거리에 '물섬'이라는 관광지를 구경했었다. 규모가 꽤 작아 보여서 걸어서 구경했었는데, 40분 동안 걸어도 섬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 20분정도 더 걸으니 창사에서 유명한 엄청 큰 '모택동 동상'을 볼 수 있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자잘한 장소를 가서 느껴본 바로는 중국의 변화한 거리는 한국의 변화한 거리와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었다.